천국이 예수영접을 방해한다

(마태복음 10:1~15)

1.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2.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3. 빌립과 바돌로매, 도마와 세리 마태,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대오,
4.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5. 예수께서 이 열둘을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6.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7.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8.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천국이 예수영접을 방해한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천국이 예수영접을 방해한다'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이유는 천국에 가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이 예수님의 영접을 방해할 수 있음이 드러납니다. 7절에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라 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온 천국은 일종의 위협입니다. 또한 예수이름 영접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제자파송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에 일정기간 제자들을 파송하셨다가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을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 말씀하셨고, 또한 9장 38절에서는 "추수할 일꾼"이라고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이 파송되었을 때에 이들은 무엇으로 사람을 낚고 추수할 수 있었을까요? 그 대답이 바로 1절에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정도 권

능을 받았다면 예수이름을 영접하도록 하는 것은 쉬웠으리라 여겨집니다만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놀라운 권능은 예수이름 영접에는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열두 제자에게 권능을 주어 파송하셨던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보기 위해 당시의 제자들과 우리의 차이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시에 천벌이라고 생각했던 나병환자까지 고치고 죽은 사람조차도 살리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써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왜 그런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없을까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목회자라면 이런 권능을 구하는 과정에서 소나무 뿌리 잡고 금식해보신 경험은 다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토록 간절히 권능을 구했음에도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권능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권능을 구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능력이 주어진 셈입니다. 따라서 권능이 주어지는 문제는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 있습니다. 결코 우리의 믿음이 열두 제자들보다 부족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이때의 제자들의 믿음이라고 해봤자 우리보다 나을 바가 없었습니다. 믿음이란 곧 어떤 대상에게 마음이 지속적으로 흘러가고 머무는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좌절되고 끊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자면 놀랍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릴 정도의 권능을 받고 예수이름으로 권능을 행사하며 기적을 베풀었던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 또한 이러한 권능을 행사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특별히 가룟 유다만이 권능을 받지 못했다는 언급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로부터 한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을 받았을지라도 그것이 구원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서도 예수님을 팔고 배반함으로써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 7장 22~23절에서 “…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과 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예수님은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이름 퍼뜨리기 작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의식 속에 예수이름을 새기기 위하여 예수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AD.400년 이후로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AD.1500년까지 1000년 동안의 중세시대에는 유럽의 거의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열두 제자들에게 허락하셨던 것과 같은 권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면서 의식 속에 심겨지고 알려지는 정도와 범위가 넓어질수록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는 일이 사그라지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이슬람 세계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던 시절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처음 듣던 때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의식이 생길 수 있게끔 권능을 통한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기적을 행하였던 사도 바울조차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하였고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정리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권능을 주셨던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람들의 의식 속에 심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에 전화도 핸드폰도 없는 상황에서 만남은 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었고 소문은 입에서 입을 통해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파송하시며 세상과의 접촉면을 열두 개로 늘리셨던 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할 때마다 사람들의 의식 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권능을 행하는 것은 구원을 얻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리고자 하신 의도적 계획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에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도 바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지금 제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채워가라는 의미입니다. 한편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방인들에게까지 예수님의 이름이 퍼져나갈 단계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열두 제자를 파송할 단계에서는 우선 유대사회로부터 예수님의 이름은 퍼져 나가야 했습니다.
다만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굳이 설득시키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이름을 널리 퍼뜨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써 파송 받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이름은 낚시 바늘이었습니다. 추수하는 일꾼으로써는 예수이름이 곡식을 베는 낫이었습니다. 고기가 물든 물지 않든 일단 예수라는 낚시 바늘을 드리워야 했던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그렇게 퍼뜨린 예수이름을 실제로 어떻게 영접하느냐는 것입니다.
14~15절을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

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리라 /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왜 예수이름을 영접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사람들이 예수이름을 영접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셨던 것일까요? 권능을 주셨음에도 이렇게 부정적인 전망을 하신 데에는 바로 사람들에게 세상 친화적인 성향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같아서는 정말로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을 행하였다면 전 세계의 방송에 대서특필 되어 유명세를 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러한 권능을 행해도 예수이름을 영접하지 않을 자들이 많을 것을 예상하셨습니다. 예수이름은 낚시 바늘입니다. 그런데 세상 친화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권능을 보고도 낚이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신 것은 추상적으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상태를 언급하신 것이 아닙니다. 혹은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였을 때에 삶이 기쁘고 행복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천국은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보좌를 펼치시고 앉아계신 바로 사실로써 존재하는 그 장소입니다.
다만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거리상으로 가까워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세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거리적으로 좁혀졌다는 뜻이 아니라 천국과 관계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 천국을 이용가능하게 되었고 소유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겨납니다. 이 천국을 이용가능하고 소유하기 위해서는 예수이름에 낚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이름의 낚시 바늘에 낚여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을 때에 천국을 이용할 수 있고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천국을 갖기 위해서 예수이름을 붙잡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을 가기 위해서는 한국을 떠나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까이 온 천국을 이용하고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을 떠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을 빠져나가는 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터널을 지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까지 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은 이 땅에서 이루고 싶고 하고 싶고 책임져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가족도 신경 쓰이고 직업도 가져야 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가능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친화적인 성향은 예배당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서는 가까이 온 천국을 무시하고 멀리 있는 천국을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죽음 뒤에 가게 될 천국만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이름을 영접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라는 낚시 바늘에 낚여서 마음이 세상을 떠나게 됨을

의미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서 마음이 떠나고 남편은 아내에게서 마음이 떠나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로부터 마음이 떠나야 하고 자녀도 부모로부터 마음이 떠나게 됩니다. 가족뿐만이 아닙니다. 직업과 돈과 건강을 비롯한 이 세상의 모든 꿈과 비전으로부터 마음은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친화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달갑지 않습니다. 가까이 온 천국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다가는 세상에서 망하게 생겼습니다. 심지어 예배당에서조차 가까이 온 천국을 전파하다가는 사람들이 다 떠나고 망하게 생겼으니 가까이 온 천국을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천국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죽은 뒤에나 천국을 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제자들이 권능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서 천국 같은 삶을 살면 된다는 식으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주신 권능은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권능을 가룟 유다도 행했던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능으로 이 땅을 천국처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좋은 상태라고 오해하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부정적 전망이 적중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많으나 실제로 예수이름에 마음이 낚여있는 사람은 드물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복음방송을 듣다가 삶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메일로 상담할 때가 있습니다. 다만 그 삶의 문제들을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제가 설교 때에 배우자 문제, 자녀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를 계속해서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담의 대부분이 이러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가 삶에서 이토록 밀접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밀접한 문제들에 대해 믿음을 보일 수 없다면 곧 믿음이 없다는 증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에 대해 믿음을 보일 수 없는데 이웃과의 관계에서 믿음을 보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돈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때에 예수이름과 돈 문제라는 두 낚시 바늘이 드리워져 있는 셈입니다. 어느 낚시 바늘을 물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이름을 영접한다면 예수이름이라는 낚시 바늘에 낚이게 됩니다. 돈 문제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온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참 의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문제의 상황을 그대로 붙잡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생활화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가 개선되기만을 바랍니다. 마음은 결국 이 땅에 머물기를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예로 배우자의 문제를 생각해보겠습니다. 배우자에게 불만이 있을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함으로써 가까이 온 천국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 기존에 배웠던 믿음은 이와는 달랐습니다. 배우자에 대해 기도함으로써 변화시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다 정 안되면 이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땅의 문제를 마음으로 붙잡고 해결해야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 해결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권능을 구하게 됩니다. 설령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지 않으시더라도 적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서가 잡히기만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그 권능은 구원과는 직접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고자 낚시 바늘을 드리우신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로 자녀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이름을 영접해야만 합니다. 예수이름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예수님이라는 낚시 바늘에 꿰여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녀가 문제인 세상을 떠나서 마음은 천국으로 가야만 합니다. 이러한 각오가 없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 친화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 온 천국을 강조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실수처럼 여길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을 떠나 천국으로 가는 것을 복음으로 주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멀리 있는 천국만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아셨기에 14~15절에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권능을 보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리라는 예상 또한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이름을 받아들였다가는 마음이 이 땅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피하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입니다.

앞서 본 9장 36절을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고생하며 기진한 이유는 마음으로 세상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돈 없는 상황은 사람을 기진하게 합니다. 돈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동안 더욱 고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더 이상 그런 고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이름이라는 낚시 바늘에 꿰어서 마음을 천국으로 보내면 돈 없는 상황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채 여전히 세상을 끌어안기를 고집합니다. 예수이름을 영접하지 않고 가까이 온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디까지나 천국은 멀리 있는 곳이기를 희망합니다. 가까운 천국을 제거한 뒤에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만들려고 예수님의 권능만을 구합니다. 그러나 이 권능은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이름 영접의 제일 큰 장애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이 땅에 대한 나의 애착이 예수이름 영접을 막는 제일 큰 장애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천국가기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보다 더 좋게 느껴지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온 천국을 제거하면서까지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기 위해 권능을 구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믿음의 상태를 더는 유지하지 않게 하여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이름에 낚여서 가까이 온 천국으로 들어가는 일이 가장 좋은 것임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